

창원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관한 연구

지 강 이*

〈목 차〉

- I. 머리말
- II. 현상 및 양식적 특징
- III. 김해·창원 지역의 신앙적 특성
- IV. 불상 제작 배경과 의미
- V. 맺음말

국문요약

창원시 대방동 불곡사에 안치되어 있는 석조 지권인비로자나불좌상은 1965년도에 소개된 이후 이 불상에 관한 단독의 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본상만이 남아 있는 옛 폐사지에 현재의 불곡사가 창건되었는데 이 폐사지에 관한 기록이 없어 사찰 성격은 알 수 없다. 아울러 창원시는 구산선문 중 하나인 봉림산문의 봉림사가 있었던 지역으로 본상과 봉림사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고, 김해·창원 지역의 불상조성의 예와 불곡사지의 성격을 선종사찰의 불상 조성의 예와 관련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본상이 제작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서 불곡사상의 제작 의미를 유추해 보았다.

그 결과, 불곡사상은 법의의 주름이 크게 U자형을 이루면서 양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어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과 같은 형식의 상이므로 두 상을 비교하여 제작시기를 동화사상(863년)보다는 늦지만 그리 늦지 않은 9세기 후반경으로 추정하였다.

김해·창원 지방은 성덕왕대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현신성불(現身成佛)

* 신라대학교 강사

이 논문은 2010년도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연구원학술재단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되었음.

을 이룬 곳이고, 금강좌진용상(金剛座眞容像)으로 추정되는 용화전 보관형 향미촉지인상을 통해 현신성불의 사상이 9세기 후반까지 전해져 교종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간 곳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선종사찰의 주존은 대부분이 철불상인 점을 감안하면 불곡사지의 사찰 성격은 선종사찰보다는 교종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불곡사상은 교종과 관련된 상으로 추측되었다.

불곡사상이 제작되었던 시기는 9세기 후반 즉, 경문왕대 중반부터 현강왕대로 이 시기는 통일신라 하대의 최전성기로서 여러 불사가 활발히 행해졌고, 특히 창원 지역은 친신라적 입장을 표명한 곳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당시의 비로자나불상은 대부분이 죽은 이를 위한 추복(追福)과 관련되어 원탑(願塔)과 함께 조성되었고, 동화사상도 그 대표적 예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친신라적 성격을 가진 김해·창원 지방의 재지 세력에 의해 본상도 동화사상과 같이 추복에 의한 제작임을 상정할 수 있었고, 왕실주도의 중앙에서의 불사가 지방에 끼친 영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불상으로 본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주제어 : 불곡사, 비로자나불상, 동화사 비로자나불상, 교종, 선종, 현신성불, 추복, 원탑

I. 머리말

창원시 대방동 불곡사에 안치되어 있는 석조 지권인비로자나불상은 정영호에 의해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¹⁾ 그러나 이후 이 불상에 관한 개별적인 논고는 현재까지 볼 수 없고, 다만 통일신라시대의 전반적인 비로자나불상의 흐름 속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다.²⁾

불곡사가 위치한 곳은 오래전부터 옛 폐사지로 여기에 현재의 불상만이 반쯤 묻혀 있던 것을 발굴하였다. 이후 1935년경에 사찰을 재건하여 불상을 금당에 안치하고 寺名을 불곡사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³⁾ 또한 이 폐사지에 관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그래서인지 경남지방의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그 수가 극히 적고, 현존하는 最古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인 산청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을 제외하면 유일한 석조지권인비로자나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상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극히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화엄종사찰 또는 선종사찰에서도 주존으로 모셔졌다⁴⁾는 통일신라시대 하대의 종교적 특성에 인하여, 불곡사상⁵⁾은 같은 김해·창원 지역⁶⁾의 구산선문 중의 하나인 봉림산문과 관련 있을 것으로 막연히 인지되기도 하였다. 봉림사 역시 폐사지였던 곳에 심희에 의해 898년경에 봉림사로 창건되었기에 그러한 추측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우선 본고에서는 불상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상의 제작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상이 조성되었던 옛 불곡사 터의 사찰이 어떠한 사찰인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김해·창원 지역의 불상조성의 예와 불곡사지⁷⁾의 성격을 선종사찰의 불상 조성의 예와 관련하여 파악하여 본상

1) 鄭永鎬, 1965, 『昌原佛谷寺 毘盧舍那佛』 『考古美術』 6권 8호.

2) 朴慶植, 1989, 『新羅 景文王代の 石造美術에 關한 研究 - 基壇部 樣式을 中心으로 -』 『史學志』 22 ; 朴亨國, 1998, 『韓國 統一新羅時代後期の 石造毘盧遮那佛坐像について - 洛東江中・上流地域(慶尙北道地方)을 中心으로 -』 『美術史』 139 ; 이숙희, 2006,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 250 · 251.

3) 정영호, 앞의 논문, 107~108쪽.

4) 박형국, 앞의 논문 ; 이숙희, 앞의 논문 ; 문명대, 2003, 『신라 하대 편년 비로자나불상』 『원음과 고전미』 예경.

5) 이하 불곡사 석조지권인비로자나불좌상을 약칭하여 불곡사상이라 한다.

6) 현재 비음산의 진례성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김해, 왼쪽은 창원으로 나뉘지만, 통일신라시대인 756년부터는 김해소경, 940년경부터는 김해부로 창원이 여기에 속해 있었다. 이하 문맥상 경우에 따라 김해·창원 지역 또는 창원 지역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이 선종사찰 즉, 봉림산문과 관련된 상인지 아니면 교종사찰의 상인지를 우선 알아보고자 한다. 이후, 본상이 제작될 수 있었던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배경을 살펴서 불곡사상의 제작 의미 및 의의를 유추해 보고자 한다.

II. 현상 및 양식적 특징

1. 현상



도 1. 불곡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통일신라 9세기 후반 창원시 대
방동 소재

불곡사상은 석조 지권인비로자나불좌상으로 연화대좌에 안치되어 있고, 광배는 결실되어 있다⁷⁾도 1>. 불상의 높이는 103cm이고, 대좌의 높이는 89cm로, 현재 보물 제 436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신의 두부는 달걀형으로 비교적 풍만한 편이나 현재 마멸이 심하여 눈과 코, 입 등의 윤곽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굽은 나발에 육계는 높은 편이나 육계와 머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큰 백호가 있으나 현재의 육계주와 백호는 後補이다^{도 2>.} 불안은 비교적 둥글고 목에는 삼도가 있고, 좁고 둥근 어깨에 통견이 감싸 있다. 대의는 양 어깨에서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를 중앙으로 크게 U자형 주름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도 3>.}

수인은 가슴 한 가운데에 양손을 올려 오른손을 위로 하여 왼손의 제 2지를 감싸는 지권인을 취하고 있으며 그 아래로는 승각기에 띠매듭이 보인다. 다리는 길상좌를

7) 현 불곡사의 옛 사지의寺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곡사터의 옛 사찰이란 뜻으로 이하 불곡사지로 부르기로 한다.

8) 현재 범당 안 불상 옆에 광배 파편이 놓여져 있다. 주지 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현재 사찰에서 북쪽으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광배를 수습했으며, 광배 파편 제일 아래 부분에 구멍의 흔적이 있고, 불상 배면에도 구멍이 있어 이 광배가 불곡사상의 광배라 하였다. 그러나 광배 파편만으로는 확실히 불곡사상의 광배라 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며, 광배만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이 의문이 들어 본 논고에서는 이 광배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취하고 있으나 왼발은 오른쪽 다리 아래로 들어가 대의 자락에 가려 표현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상으로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공주 서혈사 석조비로자나불상 등을 들 수 있다.⁹⁾ 불신의 배면에는 목 바로 아래에 지름이 약 10cm 정도의 구멍이 나 있고, 엉덩이 부분은 평편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광배를 붙이기 위해 마련한 장치로 추정된다. 이러한 배면의 구멍은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상, 서혈사지 출토의 석조비로자나불상과 석조항마촉지인상,¹⁰⁾ 창원의 불모산동 석조여래좌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통일신라 하대의 석불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불곡사상의 두부와 배면에는 부분적으로 호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전체적으로 호분을 칠하였다가 후에 다시 벗겨낸 것으로 추정된다.



도 2. 불곡사상 頭部



도 3. 불곡사상 身部

대좌는 상·중·하대석을 이루는 팔각연화좌로 상대석은 16매의 단판연화문을 2단으로 구성하였고 끝이 날카로운 간엽이 비교적 양감 있게 새겨져 있다. 중대석에는 팔각형을 이루며 각 변에 양 기둥을 조각하고 그 안에 각 공양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8구의 보살상은 모두 연화좌에 앉아 있는데 정면과 시계 반대방향으로 3번째 보살만이 합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각기 다른 공양물을 들고



도 4. 불곡사상 대좌

있다. 보살상은 모두 중대석 제일 아래쪽에 조각되어 대부분이 연화좌가 손상되어 있다.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에는 높이 약 3.5cm의 돌기된 받침이 표현되어 있다. 하대석은 상대석의 연화문보다는 단순한 8매의 복판연화문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에는 8각형으로, 각 변의 안상 속에는 7마리의 사자가 있고 뒷면 중앙에는 三花文이 새겨져 있다<도 4>.

9) 이숙희, 앞의 논문, 62쪽.

10) 조원창, 1999 『西穴寺址出土 石佛像에 대한 일고찰』, 『역사와 역사교육』3·4, 138~139쪽.

전체적으로 불곡사상은 굽은 나발과 U자형의 큰 주름을 이루는 법의, 2단의 단판연화문을 이루는 상대석과 8매의 복판연화문의 하대석,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의 돌기된 받침 등으로 이루어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상<도 5>과 거의 유사하여 같은 계통의 상인 것을 알 수 있다.¹¹⁾ 다음은 각 부위별 양식적 고찰을 통해 구체적인 제작시기를 알아보려고 한다.



도 5.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상 통일신라 863년 대구시 도학동 동화사 소재



도 6. 심복사 석조 비로자나불상 통일신라 경기도 평택 소재

2. 양식적 특징

불신을 먼저 살펴보면, 불곡사상은 굽은 나발에 머리와 육계가 명확하지 않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하대의 불상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러나 부석사 자인당의 동·서 석조비로자나불상, 경기도 평택에 있는 심복사상<도 6>보다는 그 구별이 뚜렷하여 이들 상보다는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계란형의 안면은 마멸이 심한 편이나 눈 두덩이의 상하가 같은 간격으로 많이 튀어나왔는데 이는 동화사상과 비교된다<도 7>.

통견 법의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결가부좌한 양 다리 전체를 U자형 주름을 이루면서 덮고 있다. 이러한 대의 주름은 동화사상,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상<도 8>에서도 볼 수 있다. 동화사상의 경우는 U자형 주름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며 큰 폭을 이루며 양 발을 모두 감싸고 있는 것에 비해 불곡사상은 U자형 주름의 폭이 좁아지면서 오른쪽 발은 살짝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각연사상의 경우 U자형 주름의 폭이 더욱 좁아져 양발을 모두 드러내고 있다<도 9>. 대의가 U자형을 이루는 불상은 군위 삼존석불의 본존을 비롯하여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분황사 출토 석조여래좌상 등에서도 확인할 수

¹¹⁾ 박형국은 법의의 표현에 의해 비로자나불상을 구분하고 있다. 즉, U자형의 앞치마 같은 형태의 법의를 갖춘 동화사상 계통과 양발을 노출하여 결가부좌하고 법의를 양다리 사이에 부채꼴 주름을 이루는 국립중앙박물관상계통이 그것이다(박형국, 앞의 논문, 52~53쪽). 이숙희도 법의 형식에 따라 동화사상 계통, 취서사상 계통으로 나누고 있다(이숙희, 앞의 논문, 59~60쪽). 이러한 구분에 필자도 동의하여 불곡사상은 동화사상 계통의 하나로 보기로 한다.



도 7. 불곡사상과 동화사상 안면부 비교

있으며 모두 넓은 폭의 U자형 주름을 이룬다. 그러나 시기가 내려 갈수록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법주사 수정암 석조여래좌상, 앞서 말한 각연사상과 같이 그 폭이 좁아지며 형식적인 주름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지권인을 이루는 불곡사상의 양손은 간격이 비교적 좁다. 초기의 지권인상은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상, 766년 작의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0>에서



도 8. 각연사 석조 비로자나불상 통일 신라 충북 괴산 소재

와 같이 두 손의 간격이 넓어 각 제 2지의 손가락이 많이 보이는 반면, 시기가 떨어질수록 양손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고, 10세기 초기에 제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심복사상, 강원도 용운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같이 아예 양손



도 9. 동화사상 불곡사상 각연사상 대좌는 양련의 상법의 비교



도 10.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상 통일신라 766년 경남 산청 소재

이 붙어져 있어 이들 상보다는 불곡사상은 시기가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¹²⁾

불곡사상의 대좌는 양련의 상

대석과 팔각형의 중대석, 복련의 하대석, 하대석 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석의 단판연화문의 彫飾은 살이 오르고 앞맥을 날카롭게 조각한 간엽이 특징적인데 이는 동화사상에서도 볼 수 있고,¹³⁾ 중대석의 보살상의 형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석조비로자나불상<도 11>과 거의 유사하다.

12) 박형국(1997, 『慶北大學博物館所藏砂巖造毘盧遮那佛坐像について』 『佛教藝術』230)은 양손의 간격에 따라 제작시기를 추정한 반면 이숙희는 양손의 형태에 따라 형식 분류하여 제작시기를 추정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불곡사상은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붙이고 오른손으로 왼손 둘째 손가락을 감싸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넣고 있는 듯한 형태의 제II형식에 속하는 지권인상으로 분류하였다(이숙희, 앞의 논문, 58쪽).

13) 洪大韓, 2004, 『統一新羅 石佛臺座의 造形研究 II』 『文化史學』21, 499쪽.

이러한 불곡사상의 대좌는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의 대좌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중대석과 하대석 사이의 돌기된 받침은 9세기 전반의 작으로 추정되는 청량



도 11. 석조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 석조여래좌상의 대좌에서부터 등장하나¹⁴⁾ 이 받침이 모두 돌기석인 경우는 9세기 중반대의 비로자나불상의 특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¹⁵⁾ 또한 중대석에 여러 조각상이 새겨지는 것도 9세기 중반부터 성행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는 867년작인 취서사 석조비로자나불상과 전 선림원 석조비로자나불상, 예천 용문사 석조여래좌상 등이 있다. 여기서 취서사상은 안상 속에 보살상이 조각된 반면 불곡사상을 비롯한 다른 상은 안상 없이 보살상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하대석에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취서사상부터이며 이후 하대석의 7마리 사자 표현은 통일신라 하대 즉 9세기 중반대의 비로자나불상 대좌의 특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곡사상의 구체적인 제작 시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U자형 주름의 법의로 같은 계통의 상이며 863년에 제작되어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동화사 비로암 비로자나불상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도 12. 불곡사상과 동화사상 대좌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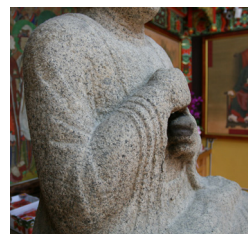
동화사상과 불곡사상은 굽은 나발, 적당한 높이의 육계, 달걀형의 안면, 상하로 같은 굽기로 튀어나온 눈두덩이, 큰 귀의 길게 표현된 컷밥에서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다. 또한, 통견에 내의의 띠매듭 중 오른쪽 매듭 끝부분이 대의 밖으로 표현된 점, 양 소매자락 끝이 형식적으로 반전되면서 이루는 주름 표현과 불신 배면의 광배를 붙이기 위한 구멍, 상, 하대석의 표현과 하대석 위의 돌기 받침 형태는 불곡사상과 거의 같다. 그러나 중대석의 경우에는 동화사상에는 구름 속에 7마리 사자가 있는 반면 불곡사상에는 팔각형의 중대석 각 면에 공양보살상을 배치하였다. 또한 동화사상의 하대석의 하부에는 앞·뒷면 중앙에 각각 향로와 삼화문을 새긴 반면, 불곡사상은 뒷

14) 박경식, 앞의 논문, 100쪽.

15) 박형국, 1998, 앞의 논문, 57쪽.

면 중앙에만 삼화문이 있고 나머지는 7마리 사자가 새겨져 있어 중대석과 하대석 하부의 표현이 동화사상과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도 12>.

불곡사상은 동화사상에 비해 불신의 양감이 줄고, 위축된 어깨, 결가부좌한 다리의 폭이 높다. 또한 법의 주름이 동화사상과 같이 밀집한 주름의 특색을 보이지만 오른 팔목 부근의 주름은 동화사상과 달리 등간격의 형식적인 평행 주름이고<도 13>, 의문의 표현 전체가 경직되어 있다.¹⁶⁾ 아울러 지권인의 왼손은 동화사상과 마찬가지로 제 2지의 손가락이 약간 보이고 있으나 손모양이 부자연스러워 동화사상보다는 그 제작시기가 늦은 것으로 판단된다<도 14>. 그러나 9세기 후반대의 불상은 육계와 머리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불신은 더욱 위축되어 움츠러져 전체적으로 단신의 작은 체형이다. 또한 결가부좌의 다리의 폭은 좁은 반면 무릎은 더욱 높아져 괴체감을 보이는 하반신, 양손을 붙여 결한 지권인, 형식적인 옷주름 등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곡사상은 동화사상보다는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13. 불곡사상의 소매 주름



도 14. 불곡사상과 동화사상의 수인 비교

Ⅲ. 김해·창원 지역의 신앙적 특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 불곡사는 예부터 폐사지였고 언제, 누가 사찰을 창건하였는지, 寺名조차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하대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화엄종에서도 선종에서도 주존으로 모셔졌던 불상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같은 창원 지역에 봉림산문이 개창되었다. 봉림산문의 봉림사도 역시 폐사지에 창건되었기에 불곡사상이 이 폐사지의 불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김해·창원 지역의 신앙적 특성을 이 지역의 불상 조성의 예를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불곡사지의 성격을 선종사찰의 주존불과 관련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¹⁶⁾ 박형국, 1998, 앞의 논문, 53쪽.

1. 김해·창원 지역 불상 조성의 예

『삼국유사』의 남백월의 두 성인인 노힐부득 달달박박조¹⁷⁾를 보면 성덕왕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백월산에서 각각 성도를 목적으로 수행하였고,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노힐부득이 먼저 미륵불로 현신성불하고 곧이어 달달박박이 아미타불로 현신성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경덕왕이 사신을 보내어 대가람을 창건했고 이 사찰은 廣德 2년(764)에 완성되어 백월산 남사라 칭하게 되었다. 여기서 남백월산은 현재 창원시 북면 월백리에 위치하여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수도하고 현신성불한 곳이 바로 창원인 점이 주목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에는 현신성불의 예가 다수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 왕성한 예¹⁸⁾와 경덕왕대 포천산 다섯비구가 서방 왕성한 예,¹⁹⁾ 동왕대의 아간 귀진집의 노비였던 옥면이 서방 왕성한 예²⁰⁾와 시대 미상의 포산의 두 성인의 성불의 예²¹⁾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공통되는 점은 위의 예가 모두 서쪽으로 날아가면서 도중에 유해를 버리고 연화대에 앉아 빛을 발하며 서방으로 왕성한 점이다. 이에 비해 부득과 박박은 유해를 버리지 않고 살아 있는 채로 그 옥신이 바로 전신이 금빛으로 빛내며 각각 미륵불과 미타불이 된 유일한 예이다. 이는 신라에서 미륵불과 미타불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불국토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²²⁾ 이를 달리 말하면, 불국토 사상을 반영한 신라의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경남 창원이고, 이 지역은 성덕왕대부터 현신성불의 수도처였던 것이다. 특히 남사에는 미륵상과 미타상이 안치되어 법상종과 관련 있는 사찰로 추정되기도 한다.²³⁾ 지금은 이 남사의 절터 흔적만이 있을 뿐 정확히 불상의 모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성산패총 안에는 9세기 후반 작으로 추정되는 용화전 석조여래좌상<도 15·16>이 있다.²⁴⁾ 이 불상은 머리에 보관을 썼고,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어 현신성불과 관련 있는 상으로 추정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가모니가 성불하기 위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은 자리는 금강좌이고, 이 보리수 북쪽에 있는

17) 『삼국유사』권3 답사 제4 南白月 二聖 努盼夫得 但怛朴朴條

18) 『삼국유사』권5 감통 제7 廣德嚴莊條

19) 『삼국유사』권8 피은 제8 布川山 五比丘條

20) 『삼국유사』권5 감통 제7 郁面婢念佛西昇條

21) 『삼국유사』권8 피은 제8 包山二聖條

22) 金煥泰, 1965, 『新羅 白月山 二聖 說話의 研究』, 『曉城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敎史學論叢』, 중앙도서출판사 ; 金煥泰, 1994,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1.

23) 文明大, 1991, 『三國遺事 南白月二聖條와 新羅 法相宗美術 -法相宗美術研究 5-』, 『美術史學』3.

24) 원래는 창원읍 소답동에 있었다.

대각사에 모셔진 불상 중 항마촉지인상으로 금강좌진용상이 있다.²⁵⁾ 현장의 『大唐西域記』권 8과 『法苑珠林』권 29에 의하면 금강좌진용상은 소조상으로 머리에 보관을 쓴 항마촉지인상인 것을 알 수 있다.²⁶⁾ 통일신라시대에는 특히 항마촉지인상이 많이 제작되었으나 보관을 쓴 촉지인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항마촉지인상과 금강좌진용상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과 박박이 현신성불한 창원 지역에 이러한 보관형 항마촉지인상이 있는 것은 금강좌진용상과 관련 있는 상으로 생각되며, 이는 창원 지역이 성덕왕대 이후 현신성불의 수도처 및 그 중심 지역으로 명맥이 꾸준히 이어져 통일신라 후반에는 금강좌진용상까지 제작되기에 이른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신성불과 관련이 있는 불상 및 사찰은 선종보다는 교종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다.²⁸⁾

한편 통일신라시대의 창원 지역에는 남사 외에 전하는 기록은 없지만 사찰로 추정되는 곳으로 최근 발굴 조사된 창원시 삼정자동 유



도 15. 용화전 석조 여래좌상 통일신라 경남 창원 성산패총 내 소재



도 16. 용화전상의 보관

25) 肥田路美, 1986, 『唐代における佛陀伽耶金剛座眞容像の流行について』, 『論叢佛教美術史』, 吉川弘文館, 157쪽.

26) 금강좌진용상은 보관만이 아니라 팔과 목에 장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금강계 밀교의 대일여래의 도상을 수용하여 성립하였다. 대일여래도 역시 보관에 팔과 목에 장식이 되어 있어야 하나 주로 지권인만은 모두 취하고 보관을 쓴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은 몇몇 점만이 전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항마촉지인에 보관만을 쓴 상이라도 금강좌진용상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27) 김리나는 통일신라시대 불상 중 보관불 형태의 항마촉지인상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고, 중국에서도 보관형의 항마촉지인상은 700년 전후에 일시적으로 유행한 도상이라 하였다 (1989, 『中國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潮閣, 32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신라 말기에 보관형 항마촉지인상이 경남 창원 지역에 조성된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신앙적, 사회적 배경과 긴밀한 관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현신성불과 관련된 기록이 거의 경덕왕대 이전이므로 선종이 들어오기 전이다. 그러므로 교종 관련인 사찰이 창건되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현신성불과 관계있는 불상으로는 합천 청량사 석조여래좌상, 양산 미타암 아미타여래입상을 들 수 있다. 이들 청량사와 미타암은 각각 해인사와 통도사의 말사로 교종사찰이다(지강이, 2002, 『합천 청량사석조여래좌상에 대하여』, 『문물연구』6; 池江伊, 2005, 『韓國梁山彌陀庵阿彌陀如來立像について—甘山寺像との比較考察を通じて—』, 『佛教藝術』278).

적을 들 수 있다. 여기에 ‘△申寺’ 라는 명문 기와가 발견되어 사찰로 판단되는데²⁹⁾ 근처에는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삼정자동마애불³⁰⁾이 있어 이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삼정자동의 사찰이 어떤 성격의 사찰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역시 교종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2. 불곡사지의 성격

현신성불과 관련 있는 김해·창원 지역의 신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불곡사지는 교종사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봉림산문이 개창되었던 현재의 봉림사는 예부터 사찰터로서 이곳에 새로 절을 중창하여 봉림사라 이름 짓고, 선종사찰이 되었다고 한다.³¹⁾ 여기서 옛 사찰에 대한 의견이 나뉘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선종사찰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³²⁾ 그렇다면 898년경 봉림사 창건 이전부터 이 지역에 선종사찰이 있었다 할 수 있으므로 불곡사지가 선종사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불곡사상이 선종의 주존불일 수도 있다. 따라서 봉림사의 주존불에 관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신라시대의 다른 선종사찰의 불상의 예를 살펴서 불곡사지의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구산선문 중 불상이 현존하는 사찰로는 가지산문의 보림사를 들 수 있다. 보림사에는 헌안왕 2년(858)에 김수종이 주도하여 조성된 철조비로자나불상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는 명문을 통해 알 수 있다.³³⁾ 또한 『보림사보조선사창성탑비문』에는 헌안왕 4년(860) 2월에 부수 김언경이 사재를 털어 철 2,500근을 회사하여 노사나불 1구를 주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에 김수종과 김언경은 동일 불사에 참여한 점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고,³⁴⁾ 시기적 차이는

29) 창원시·우리문화재연구원, 2009, 『창원 삼정자동 48번지 유적』

30) 현재 지방유형문화재 98호로 지정되어 있고, 얼굴과 불신의 가슴부분은 마멸이 심하여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향마촉지인의 자세와 도식적인 상현좌, 양감 있는 조각 수법으로 미루어 통일신라시대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慶尙南道, 1995, 『慶尙南道文化財大觀』道指定編, 118쪽).

31) 崔柄憲, 1978,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4; 曹凡煥, 1994, 『新羅末 鳳林山門과 新羅王室』, 『震檀學報』78.

32) 다른 연구자는 어떤 사찰이었는지 언급조차 없는 것에 비해 최병헌과 채수환은 정확히 선종사찰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다(崔柄憲, 앞의 논문, 417~418쪽; 蔡守煥, 1998, 『羅末麗初 禪宗과 豪族의 結合』, 『동서사학』4, 129쪽).

3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보림사 철불 조상기」 「當成弗時 釋迦如來入滅 後 一千八百八年耳 此時 情王卽位 第三年也 大中十二年 戊寅 七月十七日 武州 長沙副官 金濂宗 聞奏 情王△八月 廿二日 勅下令 △躬作 不覺勞困也」

34) 이계표(1989, 『장흥 보림사』, 『전남의 사찰』1, 목포대학교박물관·전라남도, 165쪽)와 배종민(2005, 『9세기 장흥지역 寺刹佛事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8권 2호, 62~64쪽)은 동일인물로 보고 있으나 최완수(2005, 『최완수의 우리문화 바로 보기 24』, 『신동아』4월호)는 각기

착수일과 완성일에 따른 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³⁵⁾ 아무튼 보림사에는 철조의 노사나불이 조성 안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성주산문의 성주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金立之가 찬한 『성주사비』에 “중창된 법당의 본존불로 장육세존상이 봉안되었는데 금색으로 도금되어 빛이 찬란히 드러내어 보좌에 앉아 있다.”³⁶⁾ 하여 성주사의 본존불은 금동불 내지는 철불에 도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주사 부근의 백운사 근처에서 시무외인의 철불 편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성주사 본존은 통인의 철불일 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³⁷⁾ 또한 『송엄산성주사사적』에 의하면 삼천불전에는 문성왕의 원불인 비로자나불상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이 비로자나불상의 성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³⁸⁾

실상산문의 실상사 약광전에는 철조아미타불좌상이 안치되어 있고, 회양산문의 봉암사에는 철불상이 안치된 것을 『봉암사 지증대사탑비』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즉, 호족인 심충이 회양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땅을 지증대사 도현에게 희사하였으나 도현이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땅의 지세가 험한 것을 알고 승려의 거처가 되지 않으면 도적의 소굴이 된다 하여 기와로 인 처마가 사방에 이어지게 하여 지세를 진압시키고, 철불상 2구를 주조하여 절을 호위하도록 하였다.³⁹⁾ 이후, 정진대사 공양이 924년에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봉암사에 갔을 때 폐허 속에서 지증대사 비석과 철불만은 신령스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⁴⁰⁾ 2구의 철불 중 1구는 한국전쟁이후까지 약간 파손되어 전해 오다가 사찰의 부주의로 파손되어 없어졌는데 1935년 일본인의 조사 때의 사진에 의하면 편단우견에 향마촉지인을 걸하고 있는 거불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¹⁾ 동리산문의 태안사의 『태안사지』에는 고려 태조 당시의 사찰의 규모 및 불상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당에 철조약사여래좌상이 안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⁴²⁾ 이 외, 구산선문에는 속하지 않으나 회양산문의 도현이 입적하였던 안락사에는 철조장육상이 있었

다른 인물로 보고 있다.

35) 崔仁善, 1997, 『韓國 鐵佛 研究』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54쪽; 문명대, 1983, 『신라시대 불교조각의 연구(II)』 『역사학보』73, 29쪽.

36) 김춘실, 1998, 『聖住寺의 鐵佛』 『考古美術史論』6, 96쪽.

37) 김춘실, 앞의 논문, 96쪽.

38) 김춘실은 이 비로자나불상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의 논문, 101쪽).

39)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 鳳巖龍谷 境駭橫目 幸構禪宮 … 起瓦△四注以壓之 鑄鐵像二軀以衛之』

40)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 『봉암사 정진대사탑비』 『… 屹尔者龜有臺石 禪德鐫銘 歸然者 像是鑄金 靈光照耀』

41) 김혜완, 2000, 『普願寺鐵佛의 造상 -고려 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史林』14, 38쪽.

42) 『태안사지』, 1984, 아세아문화사, 112~118쪽, 『金堂一間 堂主 藥師如來鑄造坐像』

고,⁴³⁾ 성주산문의 여염이 창건한 사나사에는 편단우견의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 철불이 안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산선문 중 보림사, 성주사, 실상사, 봉암사, 태안사의 5개의 사찰과 안락사, 사나사 등의 선종사찰에는 주로 철불이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⁴⁾ 또한 위의 5개 사찰 중 보림사만이 지권인비로자나불상이고, 그 외는 다양한 존상이 주존불이었던 점이 주목된다. 철불이 조성되었던 배경으로는 철이 사치하지 않는 재료이며 巨像일 경우 중압감이 다른 불상을 압도하며 주변 농민과 도적을 교화할 수 있는 위엄이 있어 주로 제작되었다고 한다.⁴⁵⁾ 이러한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창원 봉림산문의 봉림사에도 철불상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봉림사의 옛 사지가 비록 선종사찰이었다 하더라도 철불과 관련된 상 또는 지권인비로자나불상만이 아니라 다른 존상이 안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김해·창원 지역의 불상 조성의 예와 선종사찰의 주존상을 검토한 결과 김해·창원 지역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현신성불한 곳이고, 이들에 의해 현신성불의 수도처로 그 명맥이 이어진 것을 용화전의 보관형 향마촉지인 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선종사찰에서는 주로 철불을 조성한 점으로 미루어 불국사지는 선종사찰보다는 교종관련 사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중반 이후에 창원 지역의 교종사찰에서 이러한 우수한 석조지권인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 제작 의미에 관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IV. 불상 제작 배경과 의미

1. 불상 제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불국사상의 제작 시기는 863년에 제작된 동화사상보다는 약간 늦게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불국사상이 제작된 시기는 경문왕

4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 咸通五年 冬 端儀長翁主未亡人爲稱 當來佛是歸 … 以邑司所領賢溪山安樂寺 當有泉石之美 請爲猿鶴主人 … 告門人曰 故韓瓘公嶽動 度我爲僧 報公以佛 乃鑄丈六玄金像 傳之以鉢」

44) 선종사찰이 아닌 곳의 철불 조성의 예로는 장안사, 삼화사, 도피안사 등을 들 수 있다.

45) 崔仁善, 앞의 논문, 38~39쪽, 韓基汶, 2001,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2, 288쪽.

대(861~875년) 중반부터 헌강왕대(875~886년)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 하대의 안정기라 할 수 있고, 특히 경문왕대는 여러 불사가 행해졌다.

경문왕은 즉위 초년부터 원성왕의 원찰인 숭복사를 중창하였고,⁴⁶⁾ 경문왕 3년(863)에 왕이 스스로 단월이 되어 동화사 비로암에 민애왕을 追崇하는 3층 석탑과 지권인비로자나불상을 조성하여⁴⁷⁾ 원성왕계의 단합과 왕권강화에 힘쓴 것을 알 수 있다.⁴⁸⁾ 경문왕 5년(865)과 7년(867)에는 왕실 주도는 아니지만 각 지역에서 도피안사 철조비로자나불상과 취서사 석조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다.⁴⁹⁾ 868년에는 전남 담양의 개선사에 경문왕과 文懿皇后와 공주(후의 진성여왕)를 위해 석등을 건립하였다.⁵⁰⁾ 경문왕 10년(870)에는 보림사에 선왕인 헌안왕을 위하여 3층 석탑을 건립하였고,⁵¹⁾ 이듬해인 871년에는 역대 공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황룡사탑의 개조가 이루어졌다.⁵²⁾ 황룡사탑은 문성왕대(839~856년)에 이르러 동북으로 기울어져 이를 염려하여 재목을 모았으나 30여 년이 지나도 수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경문왕 8년(868)의 진동이 있는 지 3년 후인 경문왕 11년에 이르러서야 위홍에게 명하여 개조케 하여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완성하였다.⁵³⁾ 이는 당시의 불교 위상 확립과 국가 의식을 고양하려는⁵⁴⁾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규모 불사였다.

이러한 불사와 아울러 경문왕은 낭혜대사 무염을 스승으로 삼고, 수철화상 등의 선승을 왕실에 초청하였다. 또한 원랑대사 대통을 월광사에, 원감대사 현옥⁵⁵⁾을 고달사에 주지케 하고, 혜철이 입적하자 왕명으로 비문을 짓게 하였다. 아울러 지실사, 역성사, 성주사 등의 사원을 지원하였고, 경문왕 6년(866)에는

4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숭복사비』

47)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민애왕석탑 사리함기』

48) 金昌謙, 1988, 『新羅景文王代『修造役事』의 政治史的 考察 -王權強化策과 관련하여-』 『溪村閔丙河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49)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도피안사 비로자나불 조상기』; 『취서사 납석사리함기』

50)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개선사 석등기』

51)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보림사 석탑지』

52) 『삼국사기』권11 경문왕 11년 및 13년 ; 『삼국유사』권3 탑상 제4 황룡사구층탑조

5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황룡사 구층목탑 사리함기』

54) 全基雄, 1989, 『新羅 下代末의 政治社會와 景文王家』 『부산사학』16, 김창겸도 같은 견해로 경문왕이 황룡사탑이 가지고 있는 호국적 의미를 내세워 범국가적인 결속을 기도하는 한편, 자신의 왕권을 신장 및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72쪽). 대부분의 학자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55) 현옥은 봉림선문의 개창자인 심희의 스승으로 그의 친왕실적 입장은 심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조범환, 앞의 논문, 46~47쪽.)

황룡사에서 간등회를 열었다.⁵⁶⁾ 경문왕의 여동생인 단의장옹주는 경문왕 5년(865)에 지증대사 도헌을 안락사에 주석케 하고, 경문왕 7년(867)에는 안락사에 농장과 노비문서를 헌납하기도 하였다.⁵⁷⁾

경문왕의 아들인 헌강왕은 875년에 즉위하여 대체로 경문왕대의 정치 사회적 제도를 그대로 계승 유지하였으며⁵⁸⁾ 왕실이 안정 고착화되고 왕도가 태평한 시절로 접어들었는데 이는 다음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왕이 좌우의 신하들과 월상루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니 서울에는 민가가 즐비하고, 노래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왕이 시중 민공을 돌아보면서 “내가 들으니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고, 나무가 아닌 솟으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라고 물었다. 민공이 “신도 또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풍우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넉넉하며 변경이 안정되고 市井이 즐거워하니, 이는 왕의 어진 덕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삼국사기』권11, 헌강왕 6년 9월조)

신라의 전성기에는 서울에 17만 8천 9백 36호, 1천 3백 60방, 55리, 35개의 급입택이 있었다.(『삼국유사』권1, 기이 제1 진한조)

제 49대 헌강왕 때에 성 안에 초가로 된 집은 하나도 없고 집의 처마와 담들이 이웃과 서로 붙어 있었다. 노래 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삼국유사』권1, 기이 제1 又四節遊宅조)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헌강왕 6년(880)경에는 가히 신라의 극성기라 할 만큼 정치적 안정과 풍족한 생활을 나타내는 시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⁵⁹⁾ 이러한 시기에 헌강왕 역시 경문왕에 이어 무염을 스승으로 삼고, 도헌과 도선, 홍각 선사 이관을 왕실에 초청하여 교류하였다. 이와 더불어 성주사, 안락사, 봉암사

⁵⁶⁾ 『삼국사기』권11 경문왕 6년 정월조.

⁵⁷⁾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앞의 책,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⁵⁸⁾ 헌강왕 11년(885)에 승복사비를 세웠고, 그 내용 중 “(아버지) 뜻을 잘 계승하고 그 일을 이어 받아 잘 따르며 길이 후손에게 좋은 일을 물려주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라는 것을 통해 부왕인 경문왕의 정책 계승을 천명한 것을 알 수 있다(박미선, 2004, 『“승복사비문”을 통해 본 헌강왕과 최치원의 정치적 성격』 『호남문화연구』34, 49쪽).

⁵⁹⁾ 헌강왕이 새삼스럽게 민간의 생활상을 묻는 것은 그 만큼 국정에는 무관심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왕경의 변화한 모습이 과장이나 왜곡은 아니라는 견해(全基雄, 2005, 『憲康王代의 정치사회와 ‘處容郎望海寺’條 설화』 『新羅文化』26, 7쪽)에 필자도 동의한다.

등의 선종사원에 지원하였고, 헌강왕 2년(878)과 12년(886)에 각각 황룡사에서 백고좌강회를 열었다.⁶⁰⁾ 또한 헌강왕 9년(883)에는 先考의 추복을 위해 화엄종의 고승인 決言에게 부탁하여 엄천사를 창건하여 그를 주석케하였고,⁶¹⁾ 이듬해에는 중국 화엄종의 제 2조인 지엄에게 보은하기 위해 결사를 조직하였다.⁶²⁾ 이는 선종 뿐만 아니라 화엄종에도 관심을 가졌고, 국왕의 잦은 황룡사 친행과 연이은 불사 또한 불교계에 대한 왕실의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⁶³⁾

이처럼 불교 중심의 최전성기를 이룬 경문왕대와 헌강왕대의 사회상으로 미루어보아 불곡사상이 제작될 만한 사회적 환경 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해·창원 지역의 성격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헌덕왕 14년(822)에 김현창은 청주(현재의 진주)도독으로 5년간 있다 웅천주도독으로 옮겨간 지 1년이 안된 시기에 난을 일으켰고, 그 중심지역이 진주를 비롯한 5주 3소경이었다. 이 때 굴자군은 적에게 가까웠으나 난에 가담하지 않아 7년간 납세를 면제받은 사실⁶⁴⁾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굴자군은 의안군으로 지금의 창원을 말하고,⁶⁵⁾ 김현창이 진주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장안으로 고칠 정도의 큰 세력을 형성했을 때에도 창원 지역만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이 친신라 지역이었음을 반증하고, 달리 말하면 친왕실 입장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김해·창원 지역의 친신라적 입장은 나말려초까지 이어져 중국과의 통로를 상실한 신라 정부에 있어서 이 지역의 낙동강 하류의 교통로는 큰 활로였고, 이를 통해 당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지역의 호족인 소율회는 심희, 행적, 이암, 진공대사, 충담 등의 선승을 후원하여 김해·창원 지역을 선종의 요람지로서 명성을 떨치게 하였고, 이는 신라 멸망 때까지 이어졌다.⁶⁶⁾

통일신라시대 하대의 전성기에 특히 친신라 입장을 고수한 김해·창원 지역에 왕실에 의해 제작된 동화사상과 닮은 상이 제작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이 제작되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장을

60) 『삼국사기』권11 헌강왕 2년 2월조, 12년 6월조.

61) 조선 숙종 13년(1687)에 竹溪堂 僧絢이 쓴 『嚴川寺興廢事蹟』에 기록되어 있다(金相鉉, 1999, 『三和寺鐵佛과 華嚴業 決言大德』, 『문화사학』11·12·13, 440쪽).

62) 『圓宗文類』권22 『故終南山儼和尚報恩社會願文』.

63) 全基雄, 2005, 앞의 논문, 25쪽.

64) 『삼국사기』권10 헌덕왕 14년조.

65) 李丙燾, 1983, 『譯註 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203쪽.

66) 崔柄憲, 앞의 논문; 全基雄, 1987,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4; 金相鉉, 1996, 『新羅末 舊伽耶圈의 金海豪族勢力』, 『震檀學報』82; 구산우, 2008, 『신라말 고려초 김해 창원지역의 호족과 鳳林山門』, 『한국중세사연구』25.

바뀌 살펴보기로 한다.

2. 제작 의미

통일신라시대 하대의 비로자나불상의 성행에 관하여 왕권강화 정책에 의거하여 대승불교의 재정비 과정에서 유행하게 되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⁶⁷⁾

그러나 경문왕대에서 헌강왕대에는 비로자나불상이 주로 願塔의 건립과 함께 조성되는 특징을 나타낸다.⁶⁸⁾ 그 예를 들면 경문왕 3년(863)에 동화사에 민애왕을 추복하기 위해 3층 석탑과 함께 지권인비로자나불상이 조성되었고, 동왕 7년(867), 취서사에 伊滄 金亮宗의 딸 明端이 발원하여 원탑과 비로자나불상을 조성되었다. 보림사에 헌안왕 2년(858)에 김수종과 헌안왕의 발원으로 철조비로자나불상이 안치되었고, 이후 경문왕 10년(870)에 헌안왕의 왕생을 위해 경문왕이 발원하여 무구정탑이 건립되었다. 불국사에는 경덕왕대에 『무구정경』에 의거하여 석가탑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헌강왕이 돌아가자 정강왕 1년(886)에 헌강왕의 왕비가 출가하여 불국사 광학장 강실에 비로자나불상을 봉안하여 왕의 명복을 빌었다.⁶⁹⁾

이와 같이 경문왕대에서 헌강왕대에 걸친 시기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은 불국사 광학장 강실의 상을 제외하면⁷⁰⁾ 모두 지권인을 취하고, 죽은 이를 위한 추복과 아울러 현세에서의 복락을 위하여 원탑과 함께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⁷¹⁾ 특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지권인비로자나불상 중 가장 오래된 석남암사 출토 영태2년명(766) 석조지권인비로자나불상의 조상기에는 죽은 豆溫哀郎을 추선하고 모든 중생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어 비로자나불상의 조상은 초기부터 추선과 관련이 깊었음이 짐작된다. 현재 불국사에는 석탑의 부재가 일부 있어 탑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원탑의 성격으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불국사상은 동화사상과 형식과 양식이 거의 유사하고, 동화사상은 당시 왕실 주도의 대대적인 불사⁷²⁾였던 만큼 특히 친신라적 입장을 취하는 창원 지역으로의

67) 이숙희, 앞의 논문, 64쪽; 文明大, 1978, 『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彫刻의 研究(續)』 『美術資料』 22, 32쪽.

68) 丁元卿, 1982, 『新羅 景文王代の 願塔建立』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 5.

69) 김상현, 2006, 『九世紀 後半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 28, 238쪽.

70) 현재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없다.

71) 元善喜, 2008,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한국학논총』 30, 151쪽.

72) 경문왕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회강왕을 자살케 하고 왕위를 찬탈한 민애왕을 위해 원탑과 불상을 조성한 것은 당시의 반대세력을 아우르고 화합하여 왕권강화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김해·창원 지역의 친신라적 입장은 효공왕대(897~912년)의 김인광, 소충자, 소유희와 같은 호족이 신라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知州諸軍事로서 州治를 담당했던 것⁷³⁾으로 미루어 그 이전 시기의 친신라적 성향의 지방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들이 불곡사상 제작의 주체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지권인비로자나불상은 대부분이 낙동강 유역에 소재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상류지역인 영풍지역은 신라 화엄종의 중심지로 가장 빠른 새로운 불교문화 수용지이다. 여기서 시작된 새로운 도상들이 낙동강의 수로를 통한 교류에 의해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⁷⁴⁾ 불상의 예는 아니지만 문경의 봉암사에서는 지증대사 적조탑비를 조성할 때 碑身의 석재를 남해지방에서 운반해 온 예⁷⁵⁾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교류에 의해 지역적으로 불상 양식의 교류가 크게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불상만이 아니라 당시의 승탑 양식도 같은 양상을 이루었다.⁷⁶⁾ 그러므로 불곡사상은 동화사상과 같은 양식을 이루고 이는 그 제작 의미 또한 동화사상과 같은 추복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창원 불곡사 비로자나불상의 형식, 양식고찰을 통한 제작시기 및 불곡사지의 성격 규명과 당시 사회적 배경을 통해 제작 의미를 살펴보았다.

불곡사상은 법의의 주름이 크게 U자형을 이루면서 양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어 동화사상과 같은 형식의 상으로 두 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줄어든 양감, 위축된 어깨, 등간격의 형식적인 옷주름 등으로 미루어 863년에 제작된 동화사상보다는 시기가 약간 떨어지나, 육계와 머리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고, 불신이 단신의 작은 체형으로 변하는 9세기 후반경의 불상과는 다르므로 동화사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의도에 의해 조성된 동화사상은 당시 화제거리가 되고, 높은 인지도를 가졌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73) 全基雄, 1987, 앞의 논문, 18~21쪽.

74) 박형국, 1998, 앞의 논문, 60쪽.

75)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1』, 1994, 『봉암사 정진대사원오탑비문』

76) 蘇在龜, 2001, 『新羅下代 僧塔造營史 研究』 『美術資料』67, 56쪽

상보다는 그리 늦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김해·창원 지방은 성덕왕대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현신성불을 이루었고, 이후, 남백월산 남사가 창건되었다. 아울러 금강좌진용상으로 추정되는 용화전의 보관형 향마촉지인상을 통해 현신성불의 사상이 9세기 후반까지 전해져 교종의 중심지 역할을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종사찰의 주존은 대부분이 철불상인 점을 감안하면 불곡사지의 사찰 성격은 선종사찰보다는 교종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본상은 교종과 관련된 상으로 추정된다.

불곡사상이 제작되었던 시기는 경문왕대 중반부터 현강왕대로 추측되는데 이 시기는 통일신라 하대의 최전성기로서 여러 불사가 활발히 행해졌고, 특히 김해·창원 지역은 친신라적 입장을 표명한 곳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 당시의 비로자나불상은 대부분이 죽은 이를 위한 추복과 관련되어 원탑과 함께 조성되었고, 동화사상도 그 대표적 예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 형식과 양식이 같은 불곡사상도 추복에 의한 제작임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불곡사상은 왕실주도의 중앙에서의 불사가 지방에 끼친 영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 투고일 2010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0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28일 ■

참고문헌

- 『삼국사기』, 『삼국유사』, 『태안사지』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
- 朴亨國, 1998, 『韓國 統一新羅時代後期の石造毘盧遮那佛坐像について 一洛東江中・上流地域(慶尙北道地方)を中心に一』 『美術史』139.
- 이숙희, 2006, 『통일신라시대 비로자나불상의 신라적 변용과 특성』 『미술사학연구』250·251.
- 金煥泰, 1994, 『新羅佛敎의 現身成佛觀』 『新羅文化』1.
- 文明大, 1991, 『三國遺事 南白月二聖條와 新羅 法相宗美術 -法相宗美術研究 5-』 『美術史學』3.
- 肥田路美, 1986, 『唐代における佛陀伽耶金剛座眞容像の流行について』 『論叢 佛敎美術史』, 吉川弘文館.
- 김리나, 1989, 『中國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敎彫刻史研究』一潮閣,
- 崔柄憲, 1978, 『新羅末 金海地方의 豪族勢力과 禪宗』 『韓國史論』4.
- 배중민, 2005, 『9세기 장흥지역 寺刹佛事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8권 2호.
- 김혜완, 2000, 『普願寺鐵佛의 조상 -고려 초 原州鐵佛과 관련하여-』 『史林』14.
- 韓基汶, 2001, 『新羅末 禪宗 寺院의 形成과 構造』 『韓國禪學』2.
- 全基雄, 1987, 『羅末麗初의 地方社會와 知州諸軍事』 『慶南史學』4.
- 김상현, 2006, 『九世紀 後半의 海印寺와 新羅 王室의 후원』 『新羅文化』28
- 丁元卿, 1982, 『新羅 景文王代의 願塔建立』 『釜山直轄市立博物館年報』5.
- 元善喜, 2008, 『신라 하대 無垢淨塔의 건립과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신앙』 『한국학논총』30.

Abstract

A study on the stone-build statue of Vairocana Buddha at Bulgoksa temple in Changwon

Ji, Kang Yi

The stone-build statue of 'wisdom fist'(Jigwonin)vairocana Buddha placed in Bulgoksa temple, Daebangdong, Changwon had never been researched alone since it was first introduced in 1965. The current temple was established on the abandoned temple site where the main statue was found. Unfortunately, we cannot figure out the purpose of the temple as no documentation remains. However, considering there exists Bonglimsa temple of which is one of nine Zen Buddhism temples in Changwon, it is inevitable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statue and Bonglimsa temple. Due to these circumstances, the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recise date of foundation through examining the styl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we estimated the specifications of Bulgoksa temple site by reviewing the examples of the statues in Gimhae and Changwon as well as other Zen Buddhism temples. Besides, through looking into the general social background of the period when they built the statue, we analogized the reason why they constructed Bulgoksa temple statue.

Being similar to the seated vairocana Buddha in Biroam, Donghwasa temple, the Buddha's robe is drawn between its legs creating a large-U-shape. Therefore we assumed it was made in late 9th century, which is not much later than Donghwasa temple statue's construction.

We understand that Gimhae and Changwon are places where Nohilbuduk and Daldalbakbak became Buddha, also we can understand this was passed down till the end of 9th century through a repositioning version of seated Buddha in Yonghwajeon temple which is thought to be a Vajrasana of buddha. It seems that the statue has nothing to do with

Bonglimsa temple, knowing that Bulgoksa temple is highly suspected to be a non-zen buddhism since main Buddhas of Zen buddhism are usually metal.

Historically, it was the most vigorous days of the end of Unified Silla Dynasty, from the mid-King Kyoungmun to King Hungang, when the Buddhist rituals were performed fervently and Changwon was a Silla-friendly area. Futhermore, most Vairocana Buddha's statues those days were formed with round pagodas to show their condolences for the deads.

Thus,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statue was also built for the repose of the deceased in Donhwasa temple statue by landlords in Gimhae and Changwon under Silla's influence. It could be seen as an example demonstrating central driven Buddhist ritual performed locally.

Key Words : Bulgoksa temple, Vairocana Buddha, Vairocana Buddha at Donghwasa temple, non-zen buddhism, zen buddhism, condolences for the deads

